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15.(일) 11:00 (지면) 2026. 11. 16.(월) 조간 배포 2026. 11. 13.(금) 오후

해수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해양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방안 공유한다

- 202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1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 참가하여 해양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202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부터 참여하여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올해는 기후 협상에서 해양과 기후변화의 연계에 관한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UNOC4를 홍보하고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지 시간으로 11월 17일(화)에 피터 톰슨(Peter Thomson) 유엔 사무총장 해양특사와 면담을 갖고, UNOC4 준비 현황과 내년 사전 행사 개최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18일(수)에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UNOC4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국제사회와의 해양환경 협력 강화 등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한국홍보관에서 친환경 선박 기술, 블루카본(Blue Carbon),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UNOC4 홍보 등 4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부대행사에서는 친환경 선박 기술과 해운 탈탄소화 정책을 비롯해 갯벌·해조류의 탄소흡수 연구 성과,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 등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 기후 위기 대응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특히, 블루카본의 국제적 탄소 흡수량 산정 방법론 반영에 대비하여 이행과제와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UNOC4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우리나라 대표로 파견된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해양과 기후변화 대응을 연계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해양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UNOC4가 실질적인 국제협력과 공동 행동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책임자 담당자	팀 장 사무관	최재용 (051-773-6267) 심재희 (051-773-6268)
담당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현성 (051-773-5310) 최종일 (051-773-5327)
담당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재근 (051-773-5830) 정소희 (051-773-5834)
담당부서	유엔해양총회준비기획단 대외협력팀	책임자 담당자	팀 장 사무관	위민복 (051-773-6820) 전상훈 (051-773-680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